

程頤 『易傳』의 中正개념과 가치판단

— 이오위(二五位) 괘효사 해석을 중심으로 —

엄연석*

I. 머리말

정이(程頤: 1033~1108)는 도덕형이상학적인 본체로서 천리(天理) (또는 리(理))를 중심 개념으로 하여 유가적인 도덕실천 원리 및 규범을 세우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역전(易傳)』을 저술하였다. 그는 특히 『역전』에서 『주역』의 점서적·예언적 기능과 상(象)을 강조하기 보다는, 「십익(十翼)」에 포함된 철학적 원리에 큰 관심을 기울였다.¹⁾ 그리하여 그가 리(理)를 언급할 때, 이 ‘리’ 개념은 자연법칙의 의미도 있으나, 주로 인간에 내재한 본성과 도덕적 규범의 근원이라는 의미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²⁾ 특히 정이 『역전』에서의 관심은 지식인들의 적절한 행위규범 또는 형식을 구성하는데 그 목표가 있었다. 동시에 그는 괘효를 이런 ‘형식(pattern)’의 관점에서 모든 (인사의) 문제를 지도하는 자, 또는 가족을 위한 자기수양, 그리고 어떻게 관직에 나아가 봉사하고 물러날 것인가 하는 지침의 측면에서 보았다.³⁾

그는 이러한 유가의 정치·도덕적 실천의 문제와 관련하여 『주역』

* 한림대 태동고전연구소 연구원, 시립대·한림대 강사

1) Hsü, Fu-kuan(徐復觀), “Chu Hsi and the Ch’eng Brothers”, *Chu Hsi and Neo-Confucianism*, p.52.

2) 土田健次郎, 「伊川易傳의 思想」, 『宋代의 社會와 文化』, 1983, pp.256~7.

3) Kidder Smith, “Ch’eng I and Heaven-and-Earth”, *Sung Dynasty of I Ching*, Princeton, U. P. p.160.

의 폐효사를 해석하되 그 궁극적인 원리를 ‘리’로 본 것이다. 정이는 여기에서 ‘리’와 관련하여 『주역』을 해석하는 방법론적인 개념으로서 ‘중정(中正)’ 개념을 이용하고 있다. 이때 중정 개념은 폐효의 자질과 그 자리의 적절성이라고 하는 형식적인 측면을 규정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정이에서 중정은 특정한 ‘상황[時]’에서 ‘리’의 규범을 알맞게 실천하는 의미도 함께 가진다.⁴⁾ 곧 정이에서 ‘리’의 규범을 상황에 알맞게 실천하는 것은 중정(中正)의 도를 따르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라고 하겠다.⁵⁾

여기에서 정이가 중정 개념을 통하여 어떻게 폐효사를 해석하고 있는가 하는 점은 정이의 의리역학의 특징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정이 『역전』에서 폐효사를 해석하는데 중정 개념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 하는 점을 『주역』의 폐효 중 ‘이효(二爻)’와 ‘오효(五爻)’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절에서는 먼저 신진유학에서 언급되는 중정 개념의 일반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점을 해명하였다. 그리고 다음으로 는 ‘이효’와 ‘오효’를 각각 ‘육이효(六二爻)’와 ‘구이효(九二爻)’, 그리고 ‘육오효(六五爻)’와 ‘구오효(九五爻)’를 나누어 그 폐효의 중(中) 또는 중정(中正)이 어떻게 평가되며, 또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하는 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그런데 정이가 폐효의 김흥을 평가하는 데는 중정 개념뿐만 아니라 폐효의 음양이라는 자질이나, 폐의 전체적인 의미, 소성폐의 자질, 폐효간의 비유 관계, 주효(主爻) 등의 영향을 고려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중정 개념을 이들 폐효사의 가치판단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과의 상관성을 고려하여 살펴보고자 한다.⁶⁾

4) 박신환은 정이가 시의(時宜)에 따른 중정(中正)을 의미하는 ‘수시(隨時)’에 큰 관심을 가지는데, 이것은 문화의 변천상에서 문화의 변화와 관련된 례에서 가장 중요한 인자가 ‘시(時)’이기 때문이라 언급하였다.([『주역의 이해』, p.259.) 곧 그는 중정(中正)을 문화의 변천상에서 시의에 맞는 례(禮)를 실천하는 것과 관련하여 설명하는 것이다.

5) 張勝求, 「伊川『易傳』의 倫理思想」, 『周易研究』, 2000, p.80.

6) 정이는 나머지 ‘초효(初爻)’·‘삼효(三爻)’·‘사효(四爻)’·‘상효(上爻)’에 대해

II. 중정 개념의 일반적 의미

정이의 의리역학적인 시각에 따라 『주역(周易)』을 해석하는데 무엇보다 중요시한 개념의 하나는 ‘중정(中正)’ 개념이라고 하겠다. ‘중정’은 『주역』의 괘효사를 해석할 때 괘효의 자질과 위치 관계에 따라 결정되며, 괘효사를 해석하는 중요한 방법론의 하나이다. 그러나 중정 개념은 의리역학의 방법론적인 개념이기 이전에 유학에서 도덕적 규범 또는 실천에 있어서 궁극적인 준칙 또는 최고의 원리를 의미한다. 따라서 정이의 역학을 이해하는 데는 중정 개념의 이러한 유가철학적인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선진시대 유학의 경전에서는 주로 중(中) 개념이 종종 언급된다. 이들에는 중정(中正) 개념도 나오지만, 주로 ‘중(中)’이 궤중(厥中), 기중(其中), 정중(正中), 중도(中道), 중행(中行), 중화(中和) 등의 형태로 제시되고 있다. 이들 개념은 그것이 쓰여진 문맥에 따라 각각 다른 의미를 포함한다. 먼저 이 개념들을 살펴보면 몇 가지 유형의 의미를 구분할 수 있다.

위의 개념들 중에 ‘중행(中行)’과 ‘중도(中道)’라는 개념은 ‘중용의 도리를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⁷⁾ 곧 공자는 중용의 의미를 가진 ‘중도’나 ‘중행’ 자체를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의 의미로 본 것이다. 이와 아울러 『논어』나 『맹자』에는 ‘중을 잡는다[執中]’는 개념이 제시된다.⁸⁾ 이때 ‘중(中)’이라는 개념은 과불급(過不及)이 없이 ‘상황에 적절함’이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때 중의 의미 속에는 상황을 헤아리는 최고의 기준이라는 의미가 있다. 이처

서도 ‘중정’ 개념으로 괘효사를 해석하지만 ‘이효’와 ‘오효’가 중정과 관련하여 보다 중요하므로 먼저 이들 효에 주목하였다.

- 7) 『論語·子路』 권13-20:子曰:不得中行而與之,必也狂狷乎.狂者進就,狷者有所不爲也. 맹자(孟子)는 ‘중행(中行)’을 ‘중도(中道)’로 표현하였다.(『孟子·盡心 下』 권14-29)
- 8) 『論語·堯曰』 권20-1:堯曰:咨爾舜,天之曆數在爾躬.允執其中,四海困窮,天祿永終.(『孟子·離婁 下』 권8-20, 『孟子·盡心 上』 권13-26에도 나온다)

런 최고의 가치척도 또는 표준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상황에 따른 적절성으로 표현되는 중(中)을 『중용』에서는 ‘시의에 적중한다[時中]’고 하였다.⁹⁾

여기에서 한 걸음 나아가 유학의 경전에서 중(中)은 최고의 가치척도로써 상황의 적절성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의 바탕으로 이해되기도 하였다. 『중용』에서는 회노·애락 등의 감정이 아직 드러나기 이전의 마음의 본 바탕을 중(中)으로 언급하였다.¹⁰⁾ 여기에서 중(中)은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덕(德)이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그리고 『주역』에서 중정은 괘효의 자질 및 자리와 관련하여 시의에 적중함이라는 의미를 가짐과 동시에, 인간의 내적인 덕으로 간주되었다.¹¹⁾

요컨대 신진 유학에서 언급하는 중정(中正) 개념은 주로 중(中)을

9) 『중용』 제2장.

10) 『중용』 제1장. 이때의 중(中) 개념은 『예기(禮記)·악기(樂記)』에서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고요하게 갖추고 있는 것은 하늘의 성(性)이다(人生而靜, 天之性也.)’라고 할 때의 마음이 본질로서 성과 같다고 하겠다. 『北溪字義』에서는 中과 和를 마음의 性과 情으로 해석하였다.(Trans. Wing-tsit Chan, *Neo-Confucian Terms Explained*, p.122)

11) 『주역·계사』에서는 ‘고요하여 움직임이 있으나, 감응하면 마침내 통한다.(寂然不動, 感而遂通)』(『주역·계사 상』 제10장)고 하였는데, 이것은 일상사에서 인간의 본성의 상태를 언급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것은 곧 마음의 중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소강(呂紹綱)은 ‘중(中)과 인의(仁義)는 한 면에서는 서로 진제가 되며, 또 다른 면에서는 중도(中道)를 파악한 인재(人才)만이 인의(仁義)를 성취할 수 있다’고 언급하여, 중을 인의라는 도덕과 결합하여 이해하고 있다.(呂紹綱, 「說孔子「中」的哲學」, 『哲學與文化』, 1994, p.353) 특히 『주역』에는 주로 「단(象)」이나 「상(象)」과 같은 「역전(易傳)」에 중정(中正) 또는 정중(正中) 개념이 언급되고 있다. 이들 개념이 언급되는 괘(卦) 중 단선(象傳)에 언급되는 경우는 「수괘(需卦)」, 「관괘(觀卦)」, 「리괘(離卦)」, 「익괘(益卦)」, 「손괘(巽卦)」, 「절괘(節卦)」 등의 괘가 있고, 「소상전(小象傳)」에 언급된 경우는 「송괘(訟卦)」, 「구오(九五)」, 「예괘(豫卦)」, 「육이(六二)」, 「수괘(隨卦)」, 「구오(九五)」, 「진괘(晉卦)」, 「육이(六二)」, 「구괘(姤卦)」, 「구오(九五)」, 「간괘(艮卦)」, 「육오(六五)」, 「손괘(巽卦)」, 「구오(九五)」 등의 괘가 있다.

중심으로 제시되고 있다. 여기에서 중(中)은 증용 또는 증도를 실천하는 사람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있다. 둘째는 상황이나 조건에 적절한 한을 얻는 척도 또는 표준의 의미를 가진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최고의 가치표준의 근원으로 인간 본성에 내면화된 덕이라는 의미가 있다.

이러한 의미를 계승하여 정이는 중(中)을 천하의 바른 도리라고 언급하였으며,¹²⁾ 주희는 ‘치우치거나 기움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였다.¹³⁾ 여기에서 중(中) 개념은 유학 일반에서 볼 때 인간의 내면적인 덕성(德性)의 어떤 상태이며, 동시에 그것은 구체적인 상황에서 적절한 실천을 가능케 하는 최고의 적도의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이런 의미를 연역하여 유학에서는 중정(中正) 개념을 한 시대의 정치적 교화 또는 사회제도의 적절함 및 개인의 도덕적 실천의 최고 척도라는 의미를 가진 것으로 본다.

정이의 『역전』에서 『주역』을 해석하는 의리역학적 방법론으로 이용되는 형식으로서 중정 개념은 이처럼 유가적 도덕실천을 가능케 하는 궁극적인 원리이기도 하다. 따라서 정이 『역전』에서 언급되는 중정 개념은 괘효(卦爻)의 자질과 위치 사이의 상관관계를 지시하는 형식적인 의미를 가진과 동시에 특정한 괘효의 의미상황에서 가장 이상적인 도덕실천을 행할 수 있는 가치기준이 되기도 한다.¹⁴⁾ 이러

12) 『中庸章句·經序』: 子程子曰: 不偏之謂中, 不易之謂庸. 中者, 天下之正道, 庸者, 天下之定理.

13) 『中庸章句·經一章』 註: 其未發, 則性也. 無所偏倚, 故謂之中.

14) 정이는 이러한 중층적인 의미의 중정 개념을 『역전(易傳)』 속에서는 중도(中道), 중덕(中德), 정중(正中), 강중(剛中), 유중(柔中)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서양의 학자들은 중정(中正) 개념을 영어로 번역할 때 몇 가지 표현으로 번역한다. 민지 진영첩(陳榮捷)은 진순(陳淳)의 『북계자의(北溪字義)』에서 중(中)과 화(和)를 ‘Centrality and Harmony’로 번역하였다. 그는 부연하여 ‘Equilibrium’ 또는 ‘the Mean’으로 번역하기도 하였다.(Trans. Wing-tsit Chan, *Neo-Confucian Terms Explained*, pp.122-126)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the Mean’이라는 번역이 가장 일반적인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成中英(p.181)이나 Conrad Schirokauer(p.483)는 中을 ‘Centrality’로 번역하였으며, 傅偉勳(p.378), 蔡仁厚(p.462), 위정통(p.259) 등은 ‘Equilibrium’으로 번역하였다. 그러나 Julia Ching(p.276)의 경우는 ‘the Mean Equilibrium’으

한 의미의 중정 개념에 근거하여 정이는 『주역』을 의리역학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유가적 도덕실천이라는 목표를 관철하고 있다.

Ⅲ. 二爻의 中正에 대한 평가

1. 六二爻와 중정개념

정이는 ‘육이효(六二爻)’가 중정을 얻었다¹⁵⁾는 것을 표현할 때 ‘중(中)’ 또는 ‘정(正)’을 얻지 못한 ‘초효(初爻)’, ‘삼효(三爻)’, ‘사효(四爻)’, ‘상효(上爻)’의 중정관계를 언급할 때와 달리 절대 다수의 경우 중정(中正)이라는 단어만을 쓰고 있다. 이밖에 극소수 ‘이음거유(以陰居柔)’ 또는 ‘유중(柔中)’이라는 말을 쓴 경우도 있다. 정이는 ‘육이효’에 대해 이처럼 ‘중정(中正)’이란 표현을 써서 이 효가 중정을 얻고 있음을 분명히 언급하였다. 정이는 중정을 얻었다는 점과 관련하여 ‘육이효’를 주로 길(吉)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곧 그는 ‘육이효’가 중정을 얻음으로써 궤의 의미와 조화를 이루거나 이 의미에 순응하는 것일 때 길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정

로 번역하는가 하면(Wing-tsit Chan, *Chu Hsi and Neo-Confucianism*, U. of Hawaii P., 1986), J. Legge는 ‘Undeflected’로 번역하기도 하였다.(J. Legge, *I Ching*, Univercity Books, 1964, p.415) 이에 비하여 정(正)은 ‘Correctness’ 또는 ‘Rectitude’ 등으로 번역되었다.

- 15) 『주역(周易)』의 64괘 각각의 초효부터 상효까지 여섯 효에서 중(中)과 정(正)을 모두 얻은 효는 ‘구오효(九五爻)’와 ‘육이효(六二爻)’가 있다. 따라서 ‘중’과 ‘정’을 얻었다는 형식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구오효와 육이효는 다른 효들에 비하여 이상적인 효로서 많은 경우 길하거나 긍정적인 평가가 내려지는 것으로 예상되며 대체로 그런 편이다. 그러나 그들이 모두 긍정적인 것으로만 판단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의리역학(義理易學)에서 효사(爻辭)에 대한 길흉(吉凶)을 판단하는 기준은 중정 개념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정이는 효사의 길흉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중정 개념이외에 ‘궤의 전체적인 의미’, ‘소성궤의 성질’, ‘궤효간의 비응관계’, 그리고 ‘주효(主爻)의 기능’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역전』에서 특정 효의 길흉을 평가할 때, ‘중’ 또는 ‘정’을 얻지 못한 효가 길한 경우에 주목한 것처럼, ‘중’과 ‘정’을 동시에 얻은 효가 길하지 못하고 허물이 있는 경우에도 관심을 표명하였다.

그러면 먼저 ‘육이효’가 중정을 얻어서 길하다고 한 것 중에서 정이가 소성괘(小成卦)의 상질을 가지고 그것의 길흉을 판단한 괘를 살펴보고, 중정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흉하거나 허물이 있는 것으로 평가한 괘를 다루기로 한다. 정이는 「명이괘(明夷卦)」나 「혁괘(革卦)」의 ‘육이효’를 소성괘의 상질을 기준으로 긍정적인 효로 평가하고 있다. 이 두 괘는 모두 ‘육이효’가 ‘명철함’을 상징하는 소성괘(小成卦) 「리괘(離卦)」에 위치해 있다. 정이는 바로 이 소성괘의 ‘명철함’이라는 상질에서 이 괘들을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하는 이유를 찾고 있다. 이 ‘명철함’이라는 자질은 상황이 좋지 않은 「명이괘」와 같이 음흉한 소인(小人)들이 밝은 도리를 손상시키는 시기에 이러한 상황을 잘 파악하고 살펴서 시의(時宜)에 순응하는 기능을 한다.¹⁶⁾ 반면에 안정된 규범 또는 질서가 통용되는 시기가 아니라 변혁의 상황을 의미하는 「혁괘」에서도 ‘육이효’는 ‘명철함’의 주체로서 긍정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 곧 인정한 규범 또는 질서가 변화되는 시점에서 그 변화의 추세를 살펴 사리를 이해하는데 있어 ‘명철함’은 필수불가결한 덕목인 것이다.¹⁷⁾

그러나 ‘육이효’가 포함된 소성괘가 「리괘」로서 ‘명철함’을 상징하는 인부의 괘에 대해서 정이는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강조하여 그 효를 부정적인 것으로 평가하는 경우도 있다. 「풍괘(豐卦)」와 「기제괘(既濟卦)」가 바로 이 경우에 해당한다. 이 두 괘는 아래 소성괘가 똑같이 「리괘(離卦)」로서 그 ‘육이효’는 ‘명철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정이는 이 효와 호응관계에 있는 ‘오효(五爻)」가 괘의 의미와 관련하여 도움을 주지 않기 때문에 ‘육이효’는 좋을 것이 없다고 규정한다.

16) 『周易』 「明夷卦」 程傳: 六二, 以至明之才得中正, 而禮順。順時自處, 處之至善也。雖君子自處之善, 然當陰闇小人傷明之時, 亦不免爲其所傷。但君子自處有故, 故不能深相傷害。

17) 『周易』 「革卦」 程傳: 以六居二, 柔順而得中正。又文明之主, 上有剛陽之君, 同德相應, 中正則無偏蔽。文明則處事理, 應上則得權勢。體順則無違悖時可矣。

「풍괘」의 경우 ‘육이효’는 성대한 인을 성취하려 하면 ‘오효(五爻)’의 도유과 호응을 만아야 한다. 그러나 ‘오효’는 음(陰)으로 호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약하고 우매한 군주로서 다른 자리를 얻지 못하여 ‘육이효’에 도유를 주지 못하는 효로 규정되었다.¹⁸⁾ 이러한 호응관계의 부적실함에 따라 「풍괘」의 ‘육이효’는 부정적인 효로 판단되고 있다.

「기제괘」에서는 ‘구오효’가 ‘육이효’와 호응은 하고 있지만 괘의 의미가 ‘이미 모든 것이 성취된 상황’이어서, ‘구오효’는 다시 어떤 일을 하려는 뜻이 없는 효이므로 ‘육이효’의 명철함이 쓰여진 곳이 없다. 이런 이유로 정이는 ‘육이효’를 부정적인 효로 판단하고 있다.¹⁹⁾ 이처럼 ‘육이효’는 중정 개념 이상으로 상응하는 ‘오효(五爻)’의 자질과 지위, 또는 괘의 의미에 따라 그 길흉이 결정되는 경우도 있다.

정이는 ‘육이효’의 길흉에 대한 판단 근거를 두드러지게 특정 괘의 전체적인 의미에 두는 경우도 있다. 그가 ‘육이효’의 길흉을 괘의 의미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본 괘에는 「가인괘(家人卦)」, 「려괘(旅卦)」, 「이괘(頤卦)」 등이 있다. 「가인괘」는 집안의 현육으로써 부모형제간의 관계를 주로 함축하는 괘이다. 정이는 이 괘의 본질을 도덕적 덕목과 관련하여 인정(人情)과 은혜가 예법(禮法)이나 의리(義理)보다 앞서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혈연적인 정(情)이나 은혜에 지우치는 것을 나스리고 예의에 따르게 하는 데는 양강(陽剛)의 덕목이 좋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정이는 ‘육이효’의 음(陰)의 자질은 집안을 적극적으로 나스리는데 불리한 것으로 평가한다.²⁰⁾

18) 『周易』 「豐卦」 程傳：明動 相資，乃能成豐，二爲明之主，又得中正，可謂明者也。而五在正應之地。陰柔不正，非能動者也。… 二雖至明中正之才所遇乃柔暗不正之君，既不能下求於己。若往求之，則反得疑忘疾。暗主，如是也。

19) 『周易』 「既濟卦」 程傳：二以文明中正之德，上應九五剛陽中正之位，宜得行其志也。然五既得尊位。時已既濟，无復進而有爲矣。則於在下賢才，豈有求用之意，故二不得遂其行也。

20) 『周易』 「家人卦」 程傳：六二以陰柔之才而居柔，不能治於家者也。故無攸遂，无所爲而可也。

「이괘(頤卦)」의 경우는 스스로를 기르거나 또는 사물을 길러주는 의미를 가진 괘이다. 이 「이괘」의 상황에서는 생산활동을 해야 하며 여기에는 자신의 적극적으로 주체적인 노력이 필요한 괘이다. 그런데 정이에 의하면 ‘육이효’는 음유(陰柔)로서 스스로를 기를 수 없는 만큼 사물은 더욱 기를 수 없다. 더구나 ‘조효’나 ‘상효’는 자신의 직설한 파트너가 아니므로 가시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다. 그래서 흉한 것으로 판단되었다.²¹⁾

그런데 정이는 특별히 주효설(主爻說)에 근거하여 ‘육이효’의 길흉을 판단한 경우도 있다. 정이가 괘효의 길흉을 판단하는 근거를 주효에 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그러나 그는 주효 또한 괘효의 길흉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한 것이다. 정이는 「복괘(復卦)」에서 ‘조효’를 양이 회복되는 시기에 인(仁)의 도덕성을 회복하는 의미를 가진 것으로 이해하면서 주효로 간주하였다. 이때 ‘육이효’는 음효(陰爻)로 중정을 얻은 동시에 자신을 낮추어 도덕성의 회복을 의미하는 ‘초구’의 양을 따름으로써 길한 것으로 판단하였다.²²⁾ 반면에 그는 「간괘(艮卦)」에서 ‘육이효’는 중정을 얻어 범출의 도리를 행하는 자이지만, ‘멈춤’을 주관하는 주효(主爻)를 ‘구삼(九三)’으로 보기 때문에, ‘구삼’은 ‘중’을 잃어 따를 수 없는 자로 간주하였다. 이처럼 정이는 「간괘」 ‘육

21) 「周易」 「頤卦」 程傳：二既不能自養，必求養於剛陽。若反下求於初，則爲顛倒。故云顛頤。… 六二中正在他卦，多吉而以何也？曰時然也。陰柔既不足自養，初上二爻皆非其與，故往求則悖理而得也。 「너괘(旅卦)」는 ‘나그네로 객지를 떠도는 상황’이라는 괘의 의미에 따라 유순(柔順)한 농시에 중정(中正)을 얻은 육이(六二)를 해석한다. 곧 나그네로서 지켜야 할 덕목이 겸손인데, 유순하여 여러 사람과 교류할 수 있고, 중정하므로 행위에 한당함을 잃지 않아 ‘육이’를 선한 효(爻)라고 평가한다.

22) 「周易」 「復卦」 程傳：一雖陰爻，處中正而切比於初。志從於陽能下仁也。復之休美者也。復者，復於禮也。 정이는 구이가 초구를 동일하게 따르더라도 ‘따른다’는 의미를 가진 ‘수괘(隨卦)」에서는 비(比)의 영향력을 중시하여 육이(六二)가 초구(初九)를 따를 가능성이 많은 것에 대하여 경계하고 있다. 곧 초구를 따르면 구오(九五)의 정응(正應)을 잃는 것으로 장부(丈夫)를 잃는 것이라고 주의한다.

이효(六二爻)의 행위의 가부(可否)가 오직 중도를 잃은 양강(陽剛)인 ‘구삼효(九三爻)’에 의존하기 때문에, 만이 수용되지 않고 도가 실행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효를 길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였다.²³⁾

요컨대 정이는 ‘육이효’를 중정 개념에 기본을 두되 또 다른 근거에 따라서 그 효의 길흉을 판단하고 있다. ‘육이효’는 유순하면서도 중정을 얻은 효이기 때문에, 이처럼 소극적이지만 유순함이라는 덕목이 요구되는 상황이거나²⁴⁾ 궤의 의미가 비교적 좋은 상황을 의미할 때는 대체로 길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적극적인 행위를 해야 할 때라든가, 아니면 궤의 상황 자체가 음유로서 극복하기 어려운 때, 또는 상응하는 다른 효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이 어의치 않은 경우에는 흉(凶)한 것으로 평가한다.

2. 九二爻와 중정 개념

정이 「역전(易傳)」에서 ‘구이효(九二爻)’는 중정 개념과 관련하여 ‘중(中)’은 얻었지만 ‘정(正)’을 얻지 못한 효이다.²⁵⁾ 우선 정이에게서 ‘구이효’는 ‘바른 자리를 얻지 못했다(不正)’는 사실보다는 ‘중’을 얻고 있다는 점이 두드러지게 강조된다. 그리고 ‘구이효’가 양강(陽剛)의 자질을 가진다는 것은 궤의 의미와 관련하여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어떤 일을 실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점에서 ‘구이효’를 길하거나 긍정적인 것으로 해석하게 하는 근거가 된다. 그리하여 정이는 ‘구이효’의 양강이 음유의 자리에 위치한 것에 대하여 ‘바른 자리를

23) 「周易」 「艮卦」 程傳：六二居中得正，得正之道者也。上無應援，不獲其君矣。三居下之上，成艮之主，主乎止者也。乃剛而失中，不得正之宜。… 一雖有中正之德，不能從也。二之行正，係乎所主，非得自由，故爲趾之象。

24) 「려괘(旅卦)」나 「겸괘(謙卦)」가 이러한 상황에 해당한다.

25) 정이는 ‘구이효’가 ‘중’을 얻은 반면 정을 얻지 못한 것을 ‘양수중(陽守中)’, ‘득중(得中)’, ‘양거음(陽居陰)’, ‘강유득중(剛柔得中)’, ‘양강득중(陽剛得中)’, ‘강중거유(剛中居柔)’, ‘처중거유(處中居柔)’, ‘이강거중(以剛居中)’, ‘강중불정(剛中不正)’ 등으로 기술하였다.

언지 못했다[不正]’는 형식적인 사실보다도 오히려 양이 지나치게 강하지 않고 유순함을 지킬 수 있다는 의미를 강조한다. 반면에 정이에서 ‘구이효’가 바른 자리를 얻었느냐의 여부는 영향력이 거의 없을 정도로 미미하다. 이처럼 정이는 ‘구이효’에 대하여 양강(陽剛)이 ‘중’을 얻었다는 것에 중점을 두는 동시에 음양의 조화를 강조하면서 대부분의 괘를 긍정적이고 길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정이가 ‘구이효’의 대부분을 긍정적이고 길한 것으로 평가하는 데는 무엇보다도 ‘구이효’의 양강이 음의 자리에 있음에 따라 음양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 괘의 의미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때이다. 이것은 환언하면 양강(陽剛)만이 우세하지 않고 음과 조화를 이룰 때 인간은 특정한 괘의 전체적인 의미를 구체적인 상황에서 적절하게 실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예컨대 정이는 ‘기다리다’는 의미를 가진 「수괘(需卦)」에서 양강(陽剛)의 ‘구이효’가 두 번째 자리에 있는 것을 ‘여유있게 머무른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하여 긍정적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²⁶⁾ 또 「고괘(蠱卦)」의 ‘구이효’에 대해서 정이는 ‘구이효’가 바른 자리를 얻지 못한 것이 오히려 좋은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고괘」는 ‘부모의 잘못을 바로 잡는다’는 의미가 있다. 여기에서 정이는 부모의 잘못에 대처하는 데는 마르게 교정하려고 해서는 안되고, 부드러운 태도로 부모를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고괘」에서 ‘구이효’가 바른 자리를 얻지 않고 음유의 자리에 있는 것이 오히려 길한 것이라고 언급하였다.²⁷⁾

정이는 「대장괘(大壯卦)」²⁸⁾이나 「취괘(夬卦)」²⁹⁾와 같이 양이 왕성

26) 『周易』 「需卦」 「程傳」: 二以剛陽之才而居柔守中, 寬裕自處, 需之善也. 雖去險漸近而未至於險, 故小有言語之傷, 而无大吉, 終得其吉也.

27) 『周易』 「蠱卦」 程傳: 一巽體而處柔, 順義爲多, 幹母之蠱之道也. 夫了之於母, 當以柔巽輔導之, 使得於義, 不順而致敗蠱, 則了之罪也. 『논어』에서도 부모의 잘못에 대해서는 ‘안색과 말소리를 부드럽게 하여 말쑥드린다[幾諫]’고 하였다. (『論語·里仁』 4-18: 子曰: 事父母幾諫, 見志不從, 又敬而不違, 勞而不怨.)

28) 『周易』 「大壯」 程傳: 一雖陽剛, 當大壯之時, 然居柔而處中. 是剛柔得中, 不過於壯, 得真正而吉也.

29) 『周易』 「夬卦」 程傳: 陽將極之時, 而二處中居柔, 不爲過剛. 能知戒備, 處夬之

하기나 극성해지는 시기에 이들 괘의 ‘구이효’는 음유의 자리에 있음으로써 지나치게 강한 것을 완화시키는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 근거하여 ‘구이효’를 길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처럼 정이는 특정 괘의 전체적인 의미와 관련하여 음양의 조화가 필수적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구이효’를 해석하고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³⁰⁾

그러나 정이는 ‘구이효’에 대하여 언제나 길(吉)하고 긍정적인 것으로만 언급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정이는 어떤 때에 ‘구이효’가 양강의 자질로 ‘바른 자리를 얻지 못한 것’을 강조하면서 부정적이거나 흉한 것으로 판단하는가? 정이는 ‘구이효’가 속해 있는 소성괘가 「손괘(巽卦)」일 때 이렇게 평가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구이효’에 대해 기본적으로 양강이 음의 자리에 있음으로써 음양의 조화를 얻은 것으로 해석하는 관점이 「손괘(巽卦)」안에 있는 ‘구이효’에는 해당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소성괘로서 「손괘」는 겸손하고 유순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이효’가 이 「손괘」에 있을 때는 자리가 음유인데다 자신이 위치하고 있는 소성괘의 성질 또한 ‘자신을 낮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구이효’의 양강이 음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다. 정이는 오히려 ‘구이효’는 이위(二位)라는 자리와 「손괘」의 성질이 의미하는 음(陰)에 의해 양강(陽剛)이 중도(中道)의 덕을 잃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³¹⁾

나쁜 한편 정이는 증정을 효사이의 호응관계와 결합하여 ‘구이효’의 양강(陽剛)을 때로는 긍정적인 것으로 때로는 부정적인 것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특히 ‘오효(五爻)’가 음인 때는 이 효와 호응하여 그의 신임을 받아 ‘구이효’를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아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한다. 정이는 「대유괘(大有卦)」의 경우에 ‘구이효’는 ‘육오’의 군주로부터 신임을 받는 데다,

不善也。內懷兢惕，而外嚴誠號。雖莫夜有兵戎，亦可勿恤矣。

30) 「수괘(需卦)」와 「대유괘(大有卦)」도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

31) 『周易』「巽卦」程傳：「居巽時，以陽處陰而在下。過於巽者也。…人之過於卑巽，非恐怯，則諂說，皆非正也。二失剛中，雖巽體而居柔，爲過於巽，非有邪心也。」

재질이 강건하면서도 음유에 자리함에 따라 겸손하면서도 인을 성대하게 이룰 수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³²⁾ 이에 비하여 그는 ‘구이효’가 ‘오효’와 호응하더라도 ‘육오’의 ‘음’이라는 자질이 문제되어 ‘구이효’가 공을 이룰 수 없는 경우 ‘구이효’를 그리 좋지 않게 평가하는 경우도 있다. 「귀태괘(歸妹卦)」에서 정이는 ‘구이효’가 형식적으로는 ‘정’을 얻지 못했지만, 이 괘가 ‘여자’를 문제삼고 있기 때문에 구(九)가 들췌 자리에 있는 것은 바른 자리를 얻은 것으로 간주하였다. 그리하여 ‘구이효’를 현명하고 정숙한 여자로 평가한다. 그러나 ‘육오효’는 음유로써 위의 소성괘 「진괘(震卦)」에 위치하고, 아래 소성괘가 「태괘(兌卦)」에서 음유의 자질로써 ‘기쁨을 가져다주는 것’에 움직이는 자로써 신랄하지 못한 효로 판단된다.³³⁾ 이처럼 호응관계를 중심으로 할 때에도 ‘구이효’는 괘의 의미나 소성괘의 성질과 관련하여 긍정적일 것으로도 부정적일 것으로도 평가되었다.

정이가 ‘구이효’에 대하여 특히 부정적인 것으로 판단하였던 괘에는 「절괘(節卦)」가 있다. 「절괘」의 경우에 정이는 ‘바른 자리를 얻었다’는 것이 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하여 정이는 「절괘」의 ‘구이효’가 마름을 얻지 못한 것을 부정적인 것으로 평가한다. 동시에 그는 소성괘 「태괘(兌卦)」의 성질이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을 의미하여 강중의 덕을 잃게 하는 요소가 있는 것으로 주장하여 전체적으로 「절괘」의 ‘구이효’를 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³⁴⁾

이처럼 정이는 ‘구이효’에 대하여 대부분의 괘에서 긍정적인 효로 평가하는 반면, 「손괘」가 소성괘로 있는 괘들이나, ‘오효’와의 호응관

32) 「周易」 「大有卦」 程傳：九以陽剛居二，爲六五之君所倚任。剛健則才勝，居柔則謙順，得中則無過。其才如此，所以能勝大有之任，如大車之材，強壯，能勝載重物也。

33) 「周易」 「歸妹卦」 程傳：九二陽剛而得中，女之賢正者也。上有正應，而反陰柔之質，動於說者也。乃女賢而配不良，故二雖賢不能自遂，以成其內助之功。適可以善其身，而小施之。

34) 「周易」 「節卦」 程傳：節之道，當以剛中正，二失其剛中之德，與九五剛中正異矣。不出門庭，不之於外也。謂不從於五也。二五非陰陽正應，故不相從。若以剛中之道，相合則可以成節之功。唯其失德失時，是以凶也。

계에서 그 효의 자질이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때에 한하여 이 ‘구이효’를 부정적인 것으로 평가하였다.

IV. 五爻의 中正에 대한 평가

1. 六五爻와 中正

중정 개념과 관련하여 ‘육오효(六五爻)’는 양강의 ‘구이효’처럼 ‘중’을 얻은 반면 ‘정’을 얻지 못한 음유의 효이다.³⁵⁾ 곧 ‘육오효’는 군주의 자리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구오효’와 동일하고, ‘중’을 얻은 반면 ‘정’을 얻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구이효’와 일치한다. 이처럼 ‘육오효’는 ‘구오효’나 ‘구이효’와 같이 ‘중’ 또는 중정을 얻은 양강과 비교하여 그 의미를 살펴볼 수 있다. 정이의 ‘육오효’에 대한 해석에 의하면 ‘육오효’는 ‘구오효’와 같이 군주의 자리인 만큼 그 길흉을 결정하는 데는 아래 신하를 의미하는 이효(二爻)와의 상호 호응 관계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중정 개념을 중심으로 하여 볼 때 여기에 상하효(上下爻)의 상호 호응관계, 괘의 의미, 또는 음유로서의 자질이라는 계기가 ‘육오효’의 길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먼저 일반적으로 ‘육오효’는 군주의 자리로 ‘중’을 얻었다는 점 때문에 많은 괘에서 길하고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정이가 볼 때 ‘육오효’가 길

35) 정이는 ‘육오효’의 ‘중’을 ‘유중(柔中)’, ‘수중(守中)’, ‘거중(居中)’, ‘중덕(中德)’, ‘재중(在中)’, ‘득중(得中)’ 등으로 언급하였다. 또 음효로서 군주의 자리에 있는 효를 ‘유거군위(柔居君位)’, ‘거존처중(居尊處中)’, ‘유거존위(柔居尊位)’, ‘음거존위(陰居尊位)’, ‘육거존위(六居尊位)’로 언급하며, ‘정’을 얻지 못한 것은 ‘이유거강(以柔居剛)’으로 표현하였다. 정이는 주로 ‘육오효’가 ‘중’을 얻고 군주의 자리에 있음을 강조하는 반면, ‘정’을 얻지 못한 점은 별로 표현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실제로 괘효를 해석하고 평가할 때는 ‘정’을 얻지 못한 점과 자질이 유약하다는 측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하게 평가될 수 있는 조건은 특히 아래로부터 ‘구이효’가 호응할 때이다. 이것은 ‘육오효’가 군주의 자리에 있지만 자질이 음유이기 때문에 강건하고 현명한 ‘구이효’의 신하에게 국사(國事)를 맡겨 도움을 받아야 인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정이는 많은 경우 ‘육오효’가 ‘구이효’의 보편을 받을 경우 이 효를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구이효’의 보편을 받으면서도 ‘육오효’가 음유의 자질을 가졌다는 점을 부정적인 것으로 흉하게 이해하는 경우도 있다.

이 점과 관련하여 정이는 ‘구이효’가 정(正)을 얻지 못했을 때는 이것이 ‘중’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정을 잃지 않는 것이라는 데 의심이 없었다. 그러나 ‘육오효’에 있어서는 ‘중’을 얻었지만 자질이 음유로서 유약하기 때문에 ‘정’을 지키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경계하고 있다. 그리고 아래 자리에 호응하는 효가 없을 때 이 ‘육오효’를 길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그러면 이제 정이는 중정 개념 및 다른 평가 기준에 근거하여 ‘육오효’의 길흉을 어떻게 판단하는가? 먼저 그는 음유(陰柔)의 군주가 아래 ‘구이효’와의 호응을 통해 군주로서의 일을 이룬다는 점에 긍정적인 평가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다. 정이는 「임괘(臨卦)」에서 ‘육오효’는 ‘구이효’와 호응하여, 이의 도움을 받음으로써 수교하지 않고 천하를 다스리는 상황으로 보고 있다. 정이는 「임괘」 ‘육오효’는 지혜로움을 자임하지 않고 총명한 신하에게 국사를 맡김으로써 자신의 지혜를 크게 넓히는 자로서 길한 효로 평가하였다.³⁶⁾ 또 「몽괘(蒙卦)」의 상황에 대해서도, 정이는 이 괘의 ‘육오효’는 ‘구이효’의 강명(剛明)한 재능을 지닌 현인을 능용하여 천하의 몽매함을 교화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길한 것으로 평가하였다.³⁷⁾

이에 반하여 정이는 때로 양강(陽剛)이 우세한 시기에 ‘육오’의 음

36) 『周易』 「臨卦」 程傳: 五以柔中順體, 居尊位而下應於二, 剛中之臣, 是能倚任於二, 不勞而治, 以知臨下者也.

37) 『周易』 「蒙卦」 程傳: 五以柔順, 居君位, 下應於二, 以柔中之德, 任剛明之才, 足以治天下之蒙, 故吉也.

이 양의 기세를 완화하고 이들과 화합 또는 조화함으로써 길한 것으로 해석하기도 하였다. 「대장괘(大壯卦)」는 아래 네 효가 양효이고 위의 두효가 음효로서 아래로부터 양강의 부리가 기세 동등하게 물려오는 형상이다. 이에 대해 정이는 ‘육오효’는 힘으로 양강을 제어할 수는 없으나, ‘육오효’가 이들을 부드럽고 화평하게 대하면 양이 강함을 쓰지 않아 길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³⁸⁾ 이처럼 정이는 양의 세력이 강한 때는 ‘육오’의 음의 자질이 이런 강한 양과 조화하여 강유(剛柔)의 화합을 이룸으로써 ‘후회가 없음[无咎]’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정이는 괘의 전체적인 의미에 따라서는 ‘육오효’의 ‘음유’라는 자질 자체가 부정적인 기능을 하거나 또는 바른 도리를 지키는 데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대유괘(大有卦)」의 ‘육오효’에 대해서 정이는 음유의 자질을 문세삼는다. 그는 곧 성대하게 모는 것이 충족된 시기에는 인정(人情)이 안일하게 되며, 유순하게만 다스리면 인심이 교만하게 되어 안되고 위엄도 보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³⁹⁾ 이처럼 상황이 좋거나 안락한 평화를 누리려는 시기에는 늘 좋지 않거나 위기가 닥치지 않을까 하는 염려 또는 경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점에서 양강의 위엄이 강조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처럼 안락하거나 모든 것이 이루어져 안일해질 수 있는 시기에 있어 음유의 자질은 긍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비하여 정이는 적극적으로 문제를 처리하여 어려움을 극복해야 할 상황에 있을 때 ‘음유의 자질’을 문제삼아 아래 효의 도움을 만기나 그렇지 못하면 바른 도리를 지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고괘(蠱卦)」, ‘육오효’에서 정이는 ‘나라를 세우고 왕위를 계승하는 것[創業垂統]’이 불가능하며, 자질이 음유이기 때문에 현자를 동용해야 겨우 선왕의 공적을 계승할 정도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38) 『周易』 「大壯」 程傳: 五, 以柔居上, 若以力制, 則難勝而有悔, 唯和易以得之, 則群陽無所用其剛。是喪其壯于和易也。如此, 則可以無悔。

39) 『周易』 「大有卦」 「六五」 程傳: 以柔居尊位, 當大有之時, 人心安易, 若專尚柔順, 則陵慢生矣, 故必威加, 則吉。

것으로 평가하였다.⁴⁰⁾ 「서함괘(噬嗑卦)」에서도 정이는 ‘육오효’가 강건한 자리에 있는 것은 좋으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마르고 견고한 것(正固)을 지켜서 위태로운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하여 자질이 유약한 것을 그다지 긍정적인 것으로 보고 있지 않다.⁴¹⁾

다음으로 정이는 비응의 관계를 기준으로 하여 ‘육오효’가 ‘중’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것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비괘(賁卦)」는 문식을 통하여 분화를 창달한다는 의미 또는 내실이 짚어진 상태에서 외적인 꾸밈이 우세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괘에서 ‘육오효’는 군주의 자리에 있으나 자질이 유약하여 스스로 꾸미기에 부족하고 ‘상구효(上九爻)’와 친하게 어울리[比] 그를 따른다. 정이는 이것은 타인으로부터 꾸미지기를 바라는 것이므로 ‘부끄러운 일[吝]’이라고 주장하였다.⁴²⁾ 이러한 관점을 정이는 「이괘(頤卦)」에서도 지적하고 있다. 「이괘」는 군주의 입장에서 볼 때 친하 백성들을 다스리고 길러주는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때 친하를 바르게 길러주고 다스려야 하는 군주로서 ‘육오효’는 오히려 ‘상구효’의 기쁨을 받는 처지가 되어 고편적인 원칙에 반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길(古)하지 못한 효로 평가되고 있다.⁴³⁾

정이는 ‘비(比)’의 관계와 관련하여 ‘육오효’의 유유의 자질을 부정적인 것으로 판단할 뿐만 아니라, ‘이효’와의 호응관계에서 아래 효의 도움을 받지 못함에 따라 ‘육오효’를 부정적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정이에 의하면 「복괘(復卦)」의 경우 ‘육오효’는 중순(中順)의 덕으로 선(善)과 인(仁)을 회복하는데 단독할 수 있지만 아래로부터 호응이 없

40) 『周易』 「蠱卦」 ‘六五’ 程傳：大創業垂統之事，非剛明之才，則不能。繼世之君，雖柔弱之資，苟能任剛賢，則可以爲善繼，而成令譽也。

41) 『周易』 「噬嗑卦」 ‘六五’ 程傳：六五雖處中剛，然實柔豷，故戒以必正固，而懷危厲，則得无咎也。

42) 『周易』 「賁卦」 程傳：六五，雖居君位而陰柔之才，不足自守，與上之剛陽相比，而志從焉。獲貴於外比之賢，貴于丘園也。

43) 『周易』 「頤卦」 程傳：陰柔之質，无貞剛之性，故戒以能居貞則吉。以陰柔之才，雖倚賴剛賢，能持循於平時，不可處艱難變故之際，故云不可涉大川也。

어서 크게 길함을 나할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⁴⁴⁾ 「리괘(離卦)」에서도 정이는 ‘육오효’는 유로서 존위(尊位)에 있지만 양강(陽剛) 사이에 끼여있어 위태로운 상황인데나, 아래 효와 호응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없어 스스로 마름을 지켜야 길함을 보존할 수 있는 것으로 호응관계의 영향을 중시하고 있다.⁴⁵⁾

정이는 ‘육오효’에 대한 김홍판단에서 다른 효와 마찬가지로 중성 개념을 가장 기본적인 평가기준으로 삼는 동시에, 괘의 의미, 호응관계, 그리고 음유의 자질 등을 통하여 그 길흉 여부를 따지고 있다. ‘육오효’에 대한 정이의 김홍판단의 특징은 ‘육오효’가 ‘중’을 얻은 군주임에도 불구하고 음유의 자질을 가지고 있음에 따라 모든 일을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처리해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육오’의 음의 자질은 기본적으로 ‘중’을 얻었기 때문에 평이하고 좋은 상황 또는 아래의 ‘구이효’의 호응을 받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육오효’는 유순한 덕으로 현명한 자를 등용하여 국사를 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길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 ‘육오’로서 군주의 유약한 자질은 때로 지나치게 안락한 것에 빠져 백성들을 교만하게 하기도 하며, 때로는 어려운 일을 적극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기도 한다. 그리고 때로는 다른 양강의 효에 의존하여 자신의 당위적인 실천을 포기함으로써 부끄러움을 초래하기도 한다. 요컨대 ‘육오효’는 자리는 군주이면서 ‘중’을 얻었지만, 자질의 유약함이라는 문제가 있는 만큼 정이는 특히 위아래의 도움을 받아서 마름을 지키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육오효’에서 ‘중’은 중요하지만 ‘바름을 얻는다[得正]’는 낙목의 중요성이 더욱 부가되는 효라고 하겠다.

44) 『周易』 「復卦」 程傳：六五以中順之德，處君位，… 能教篤於復善者也，… 以柔居尊，下復無助，未能致亨吉也。

45) 『周易』 「離卦」 程傳：六五居尊位而守中，有文明之德，可謂善矣。然以柔居上，在下无助，獨附麗於剛強之間，危懼之勢也。

2. 九五爻와 중정

정이에 있어 '구오효'는 '중'과 '정'을 모두 얻은 효⁴⁶⁾로서 군주의 중정을 상징한다. 이처럼 '중'과 '정'을 모두 얻음에 따라 이 효는 일반적으로 긍정적이고 길(吉)한 평가가 많은 효로 간주되기 쉽다. 실제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많은 경우에 있어 '구오효'는 중정을 얻음에 따라 길한 효로 평가된다. 그러나 '구오효'가 중정을 모두 얻었다고 하여 이 효가 반드시 길하고 긍정적인 것으로만 평가되는 것은 아니다.

먼저 정이에 있어서 '구오효'는 주로 정치상 군주의 지위로서 그는 그 자리에서 당연히 이루어야 할 실천적 역할을 중시하였다.⁴⁷⁾ 이것은 곧 군주는 특정한 때의 상황에서 그 때가 지시하는 의미와 관련한 정치적 상황을 이상적인 방향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실천적 목표를 지향하여 행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정이는 특히 '구오효'의 군주가 어진 신하의 호응으로 보좌를 받는 것이 이러한 실천적인 목표에 이르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리하여 정이가 '구오효'를 해석하고 평가하는 데는 '구오효'와 호응관계에 있는 '이효(二爻)와의 관계가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물론 그는 비(比)의 관계나 소성괘의 성질, 그리고 괘의 의미에 따르는 길흉의 평가도 부분적으로 행하고 있다.

그러나 정이는 '구오효'가 '이효'와 호응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이것이 바로 길하고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고 고았다. 예컨대 정치적으로 군주가 큰 공적을 이루어야 하거나, 어려운 상황을 극복

46) 정이는 '구오효'가 중정을 얻었다고 하는 것을 '거존득정(居尊得正)', '양강거중(陽剛居中)', '중정(中正)', '정(正)', '구거존위(九居尊位)', '구거군위(九居君位)', '정중(正中)'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47) 정명식은 오효(五爻)의 자리를 정치사상과 관련하여 권력이 정당한가 그렇지 않은가의 합리적 표준은 덕(德)에 있는 것이지, 위(位)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오효의 자리에 지한 군주 권력의 정당성의 측면을 강조하였다.(정명식, 「『易程傳』을 통해 본 程伊川의 政治의 思惟」, 『周易研究』, 2000, p.122)

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때, 군주의 입장에서 아래 신하로부터의 도움은 절대적인 것이다. 그러나 ‘구이효’가 ‘유이효’를 만나 호응을 이루었다고 해도, 정이는 이 ‘유이효’를 유약한 신하로 평가하여 이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군주에게 별 도움을 주지 못하는 자로 간주한다. 그래서 정이는 꾀의 의미가 이렇게 어려움을 극복하는 상황에 있는 ‘구오효’에 대하여 대체로 길하지 못한 것으로 규정한다.

만면에 정이는 두 번째 자리에 양상의 구이효(九二爻)가 자리하면 자질은 군주를 보필할 수 있지만 시로 호응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는 것으로 인식한다. 이처럼 정이는 ‘구오효’에 대하여 중정을 얻은 효라는 관점보다는 군주의 자리라는 위치로서 바람직 실천해야 할 당위적 과제를 수행하는 것을 중시하였다. 그리하여 ‘구오효’에 있어서는 신하들의 보필이 그 길흉을 평가하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면 정이가 ‘구오효’를 중정 개념 또는 다른 기준에 따라 그 길흉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정이는 먼저 어떤 일을 행할 때 초기 상황에 어려움을 상징하는 「屯卦(屯卦)」에서 ‘구오효’의 군주는 강명(剛明)한 신하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신하의 자질이 유유(陰柔)이므로 은택을 백성에게 내릴 수 없어 길(吉)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⁴⁸⁾ 그러나 이처럼 어려움을 뜻하는 꾀가 아닌 경우에 ‘유이효’의 호응은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가인괘(家人卦)」에서 정이는 ‘구오효’는 중정의 자리에서 밖에서 스스로 공경스럽게 하면 ‘유이효’는 중정의 자리에 앉아 안에서 집을 바르게 하여 좋은 것으로 평가한다.⁴⁹⁾

만면에 정이는 꾀의 전체적인 의미가 어려운 상황을 상징하여 상

48) 『周易』 「屯卦」 程傳: 五居尊得正而當屯時, 若有剛明之賢, 爲之輔則能濟屯矣, 以其无咎也, 故屯其膏, 人之尊, 雖屯難之世, 於其名位, 非有損也, 唯其施爲, 有所不行, 德澤有所不下, 是屯其膏, 人之屯也.

49) 『周易』 「家人卦」 程傳: 九五男而在外, 剛而處陽, 居尊而中正, 又其應順正於內, 治家之至正至善者也, … 王假有家, 五, 君位故以王言, 假, 至也, 極乎有家之道也.

황을 극복해 나아가는 데는 '구오효'와 호응하는 효가 마찬가지로 양강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때로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는 「곤괘(困卦)」에서 양강(湯剛)의 '구오효'가 양강의 '구이효'와 형식적으로는 호응하지 않으나, 곤경함을 뜻하는 괘의 상황에서는 두 양의 결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동덕상응(同德相應)의 의의를 강조하였다.⁵⁰⁾ 정이는 곤경스러운 상황에서는 음양의 호응이 아니라 상중(剛中)의 덕을 가진 자들이 협력해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여기에서 정이는 음양의 호응과 양(陽) 사이의 결합을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음양(陰陽)이 상호간에 호응하는 것은 부부나 혈육간의 관계에서와 같이 자인스럽게 서로 교감하여 호응하는 것이지만, '구오효(九五爻)'와 '구이효(九二爻)'와 같은 상중(剛中)의 덕은 서로 응하고자 하고 서로 필요하다고 생각한 후에 마음이 합치하는 것으로 군신(君臣)·붕우(朋友)의 관계에서와 같이 의(義)에 따라 협력하는 것이다.⁵¹⁾

곧 정이는 양강의 자질을 가진 경우에 서로 호응하는 위치에 있는 한 괘의 의미 상황에 따라 그들이 상호간 협력해야 할 당위성이 있을 때, 이들은 서로 의리(義理)에 따라 호응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정이는 '구오효'가 중정을 얻었다는 점을 중시하면서도 비(比)의 관계가 폐효의 길흉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기도 하였다. 정이는 「괘괘(夫卦)」에서 '구오효'는 중정을 얻어서 '상육효'를 설단하여 제거해야 할 위치에 있지만, '친애하여 따르는[比]'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거하지 못하여 허물이 생길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⁵²⁾ 또 「태괘(兌卦)」에서도 정이는 '구오효'는 '상육효'와 비(比)의

50) 『周易』 「困卦」 程傳：五雖在困而有剛中之德，下有九二剛中之賢，道同德合，徐必相應而來，共濟天下之困，是始困而徐有喜說也。

51) 『周易』 「困卦」 程傳：曰：陰陽相應者，自然相應也。如夫婦骨肉分定也。五與二皆陽爻，以剛中之德同，而相應相求而後合者也。如君臣朋友義合也。

52) 『周易』 「夫卦」 程傳：剛陽中正，居尊位，然切近於上六，上六說體而卦獨陰，陽之所比也。五爲決陰之主，而反比之，其咎大矣。

관계에 있지만 ‘상유효’는 소인으로 가식적인 선을 행하는데, 이것을 그대로 믿으면 위대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⁵³⁾ 여기에서 정이는 궤의 특수한 의미에 의존하여 ‘구오’의 길흉이 비의 관계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나아가 정이는 궤의 의미를 특별히 중시하여 ‘구오효’가 중정을 얻었다고 하여 반드시 좋은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암시하는 궤도 있다. 례(禮)를 실천하는 의미를 가진 「리괘(履卦)」에서 정이는 ‘구오효’를 긍정적인 것으로 보지 않았다. 그에 따르면 ‘례’는 인간이 실천하는 것인데, ‘구오효’는 양상으로 중정을 얻었지만, 이렇게 지나치게 과감하게 행위하는 것은 바르게 하더라도 위태로운 부분이 있다고 평가한다.⁵⁴⁾ 또 「정괘(井卦)」에 대하여 정이는 ‘구오효’가 중정을 얻은 것은 신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정이는 「정괘」의 본질적인 의미를 강조하여 ‘구오효’의 길흉을 평가하고 있다. 그는 우물은 물을 위로 길어 올리는 데서 그 본질적인 의미와 공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상유효’가 그 공을 이루는 반면 ‘구오효’는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구오효’를 ‘길하대吉’고 표현하지 않았다고 보았다.⁵⁵⁾

이처럼 정이에서 ‘구오효’는 중정을 얻어서 길한 경우 이외에 길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는 데에는 비유의 관계와 궤의 특수한 의미도 두드

53) 『周易』 「兌卦」 程傳：九五得尊位而處中正，盡說道之善矣。而聖人復設有厲之戒。蓋堯舜之盛，未嘗無戒也。戒所當戒而已。雖聖賢在上，天下未嘗無小人，然不敢肆其惡也。 「咸卦(咸卦)」도 이린 함의를 가진다.

54) 『周易』 「履卦」 程傳：五以陽剛乾體，居至尊之位，任其剛決而行者也。如此則雖得正，猶危厲也。古之聖人居天下之尊，明足以照，剛足以決，勢足以專，然而未嘗不盡天下之議。… 若自任剛明，決行不顧，雖使得正，亦危道也。 정이는 ‘리(履)’라는 궤명(卦名)의 의미인 ‘례(禮)’로 해석하였다. 이것으로 보면 ‘례’는 규범 또는 규칙으로 이미 정해진 것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진취적인 태도를 지니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55) 『周易』 「井卦」 程傳：五以陽剛中正，居尊位。其才其德，盡善盡美。井冽寒泉食也。於井道爲至善也。然而不言吉者，井以上出爲成功，未至於上，未及用也。故至上而後言元吉.

러지게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소성괘의 자질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다. 특히 정이는 ‘구오효’가 ‘육이효’와 호응할 때는 음유의 자질을 문제삼는 경우가 많다. 또 ‘구이효’의 경우에도 ‘구오효’와는 동덕상응(同德相應)의 의미가 있으나 서로 호응하지 못하는 점이 강조되어 ‘구오효’가 공을 이루지 못하는 점을 부각시키기도 한다.

그래서 정이는 ‘오효(五爻)’와 ‘이효(二爻)’가 호응하는 ‘육오효’와 ‘구이효’의 관계와 ‘구오효’와 ‘육이효’의 관계를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곧 ‘육오효’와 ‘구이효’의 경우는 ‘육오효’가 ‘구이효’의 도움을 통하여 공을 세우는 경우가 많은데 비하여, ‘구오효’와 ‘육이효’의 경우는 ‘구오효’가 ‘육이효’의 도움을 받아 공을 이루는 것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⁵⁶⁾ 이것은 정이가 ‘구오효’와 관련하여 ‘육이효’의 자질을 문제삼는 것이다.

V. 맺음말

정이는 유가의 도덕적 실천을 목표로 하여 『주역』의 괘효사를 ‘중정’ 개념을 통하여 의리역학적인 관점에서 해석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정이가 중정 개념을 통한 의리적인 역 해석의 방법을 어떻게 구체적인 괘효사에 적용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동시에 ‘중정’ 개념이 유가적 도덕실천이라는 목표에 궁극적인 실천적인 가치척도가 된다는 점을 괘효사를 해석할 때 어떻게 반영시키고 있는가 하는 점을 고찰하였다. 이제 본론에서 분석한 것을 중심으로 중정개념을 통하여 정이가 『주역』의 이효(二爻)와 오효(五爻)의 괘효사를 해석한 특징을 요약하기로 한다.

정이가 『주역』의 괘효사를 평가할 때 ‘육이효’와 ‘구오효’는 중정을

56) 『周易·蹇卦』‘九五’程傳：故凡六居五·九居二者，則多由助而有功，蒙泰之類，是也。九居五·六居二，則其功多不足，屯·否之類，是也。蓋臣賢於君，則補君以君所不能。臣不及君，則贊助之而已。

모두 얻은 효이다. 그러나 이들 효사에 대한 평가는 각각 다르다. 그에 의하면 ‘육이효’는 하괘(下卦)에 ‘명철함’을 상징하는 「리괘」가 있을 때는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육이효’는 유순하면서도 중정을 얻어서 ‘유순함’이라는 덕목이 요구되는 상황 또는 괘가 비교적 좋은 상황을 의미할 때 대체로 길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하지만 괘의 상황이 어려워 음유로 극복하기 어려운 때는 대체로 흉하게 평가되었다. 반면에 ‘구오효’는 중정의 군주로서 정치적 교화와 도덕적 실천이 강조되면서, ‘이효’와의 호응관계가 그것의 길흉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구오효’와 ‘육이효’는 호응은 이루지만 ‘육이효’의 도움을 받아 공을 이루는 경우는 많지 않아 길하지 않게 평가하는 경향이 많다.

또 한편으로 ‘구이효’와 ‘육오효’는 중(中)을 얻은 효들이다. 이들에 대하여 정이는 역시 각기 다른 해석을 행하고 있다. 그는 ‘구이효’의 경우 대체로 양으로서 음에 자리한 것을 음양이 조화를 이룬 것의 측면에서 보아 대부분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손괘(巽卦)」가 소성괘일 경우나, ‘오효’와의 호응관계에서 ‘육오효’의 자질이 문제될 때는 ‘구이효’가 부정적인 것으로 평가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육오효’는 중을 얻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에서 구이의 현명한 덕을 지닌 사람을 등용하여 보필을 받으면 된다고 하여 길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중은 얻었으나 자질이 유약하다고 하는 약점에 따라 ‘마류[馬類]’을 지키는 노력을 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전체적으로 정이는 위와 같이 중정 개념을 통하여 괘효사를 해석하였지만, 이들 괘효간의 호응관계, 소성괘의 자질, 또는 괘의 전체적인 의미라고 하는 판단 기준과 결합하여 괘효사의 길흉을 설정하였다. 그리하여 정이는 중정 개념을 방법론적으로, 그리고 유가적 도덕 실천의 최고 준칙으로 삼아 「주역」 괘효사를 의리역학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정이의 중정 개념은 유가적인 도덕적 실천과 관련하여 「주역」을 해석하는 데 있어 그의 리(理)개념 만큼이나 본질적인 중요성을 가진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 胡廣, 『周易傳義大全』, 程頤, 『易傳』
- 郭信煥, 『周易의 理解』, 서광사, 1990.
- 嚴連錫, 「程頤 『易傳』의 易學理論에 관한 研究」, 서울대 박사논문, 1999.
- 張勝求, 「伊川 『易傳』의 倫理思想」, 『周易研究』, 周易學會, 2000.
- 정병석, 「『易程傳』을 통해 본 程伊川의 政治的思惟」, 『周易研究』, 周易學會, 2000.
- 朱伯崑, 『易學哲學史』 第2卷, 華夏出版社, 1995.
- 呂紹綱, 「說孔子「中」的哲學」, 『哲學與文化』, 1994.
- 土田健次郎, 「伊川易傳의 思想」, 『宋代의 社會と文化』, 1983.
- 戶田豐三郎, 『周易註釋史綱』, 風間書房, 1967.
- Hsü Fu-kuan(徐復觀), “Chu Hsi and the Ch’eng Brothers”, *Chu Hsi and Neo-Confucianism*, 1986.
- J. Legge, *I Ching*, Univercity Books, 1964.
- Kidder Smith, “Ch’eng I and Heaven-and-Earth”, *Sung Dynasty of I Ching*, Princeton, U. P., 1990.
- Richard Wilhelm, *The I Ching or Book of Changes*, Columbia U. P., 1986.
- Wing-tsit Chan(Trans.), *Neo-Confucian Terms Explained*, Columbia U. P., 1986.
- Wing-tsit Chan, *Chu Hsi and Neo-Confucianism*, U. of Hawaii P., 1986.